

불교문화재연구, 성보 가치지표 만든다

2015 신년사업 발표, 예산 사업활용... 보존정책도 강화

성보 문화재의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모아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2월 26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보존·관리분야로 연구소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장 정안 소장은 "우리의 일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있듯이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불교계가 앞장서서 알리고 보존해 나가야 한다"며 "전체 문화재의 60%인 불교문화재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 같은 방침 하에 2014년 기존 불교미술연구소와 유적연구소와 함께 정책연구실을 만들어 기반작업을 진행해왔다.

정책연구실은 불교문화재의 공익성과 경제성 등 가치연구를 통해 각종 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정 88건, 시도지정 293건의 불교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안 소장은 "연구소의 전문성을 활용해 일선 사찰에도 활용, 교육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사찰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육성에도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소 산하 불교미술실은 201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작한 전국

정책연구 2년차 맞아 도입

불교문화재 사업 자료 구축

목판일제조사 후 인출 시작

사지정보, 문화재 지정 박사

목판 일제조사의 2년차 사업을 맞아 경판 인출을 시행한다. 인출되는 경판은 2014년 조사완료된 송광사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경판 21종으로 인출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2015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7개 사찰의 목판 5481점이 조사되며 범어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4년 진행한 목판 일제조사사업 모습

와 석남사, 해인사 소장 목판의 수장처 보존환경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불교미술실은 문경시의 요청을 받아 김홍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시도유형문화재 자료 발굴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출범 이후 2014년까지 81건의 보물 지정을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이 추가로 지정되고 있다.

이용은 불교미술실장은 "조선시대 사찰에는 판전을 대표로, 경판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문화가 있었다. 경판 인출을 통해 불교계의 인출문화에 부합하는 작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적연구실 또한 2010년부터 4년간 진행한 폐사지 학술조사의 2단계 사업으로 사지 및 소재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 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4월 2단계 사업을 알리는 조계사 고분법회를 시작으로 유적연구실은 사지보존 정비·관리 매뉴얼 마련, 소재문화재 총람 발간 등 그동안 축적된 조사자료를 엮는데 주력한다. 또 미조사 사지 보완작업을 진행하며 대구 경북지역 200개 소 사지 현황이 조사된다. 이와 함께 보성 개흥사지, 삼척 흥건리사지 등 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정밀 발굴조사도 시행한다.

“열반경 사상 속에 민주주의 근간 찾자”

교불련, 24일 '진여와 불성' 세미나서 학자들 현대적 의미 모색

동아시아불교에 폭넓게 영향을 준 <열반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불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2월 24일 부산 진여원에서 '진여와 불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이날 자리에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열반경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열반경의 정치철학적 함의' 발표를 통해 공화주의의 기본사상으로 열반경의 정신이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열반경>이 인간존중을 비롯한 정치이데올로기 형성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인간의 존재를 부처님의 지위로 고양시키는 대승열반경의 불성사상은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발전돼 유엔 인권 선언과 선진 민주국가의 헌법 정신에 구현되고 있는 인간존중과 인권사상의 근간이 됐다"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열반경이 추구하는 미래상은 대역외까지도 구원되는 세계를 기린다. 이는 율바라밀과 사무량심으로 가능한 한데 이러한 이념 하에서 칠불사위법에 의한 승가 공동체 운영방식이 나오게 된다"며 "여기서 원칙과 합의에 의해 운영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日서래사에 견성암(봉은사 전신) 영산회상도가?

문명대 교수, <강좌미술사>서 가치 조명... 조선 영산회상도의 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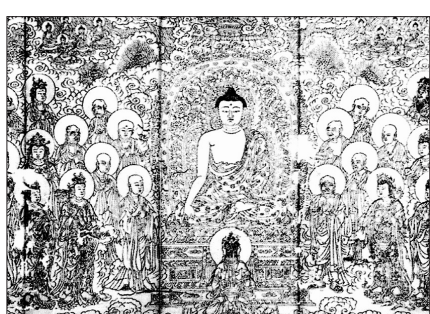
일본 서래사 세이라이지 소장 유물인 1459년 견성암 변상도에 대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강좌미술사> 43호를 통해 일본 서래사에 보존된 법화경 1점과 법화경 옆의 변상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다.

서래사 소장 법화경과 변상도<사진>는 지난해 11월 동국대 박물관에 최초 공개된 바 있다. 특히 변상도는 석가여래 앞에 무릎 꿇고 불법을 청하는 '보살형 청문자'가 등장하는 국내 최초의 그림으로 조선시대 영산회상도의 원류가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명대 교수는 "7권 팔말문을 보면 세종대왕의 5남 광평대군의 처 신씨의 발원으로 이를 세기게 되었는데 당시 세조 정권 5년 차로 왕실 안정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조선 사찰이 견성암으로 나오는데 개성 견성암과 봉은사 전신인 견성암이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견성암 변상도는 특히 티벳계 명상식 불상의 특징이 나타난 조선 초기 영산회상의 원조로 도상특징과 양식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 교수는 고려 법화경변상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정면을



향한 향마족지인의 석가불과 8대 보살, 10대제자들의 모습이 짜임새 있게 배치된 새로운 형식을 보이는 최초의 예라고 설명했다. 이 변상도는 세조가 직접 참여해 왕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1463년 언해본 <법화경>에도 그대로 차용되는 등 18세기까지 모각됐다.

문 교수는 "한국의 불교판화는 조선전기와 후기의 불교회화를 연결하는 고리임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불교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며 "서래사 소장 견성암 영산회상도는 일본 내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한·일 불교문화 교류에 있어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서래사가 특별 공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전재성 박사, '쌍웃따니까야' 통합 전집 펴내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최근 2002년 완역 출간한 초기불전 <쌍웃따니까야>을 한권으로 통합한 <통합쌍웃따니까야전집·사진>을 펴냈다.

기존 <쌍웃따니까야>는 제1권 시와 함께 모아엮음(교리와 관련된 문헌적인 시), 제2권 인연 모아엮음(피로움의 발생), 제3권 존재의 다발 모아엮음(피로움의 거룩한 진리), 제4권 여섯 감각 모아엮음(피로움의 거룩한 진리), 제5권 광대한 모아엮음(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방법)의 5권으로 전 박사는 11권으로 나눠 펴낸 바 있다.

전재성 박사는 2월 24일 "통합개정본은 색인화 작업으로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부처님이 비유를 통해 설하신 부분을 목록과 쪽수를 달아 부록으로 실었다"고 밝혔다.

<쌍웃따니까야>에는 5460여 개의 주석을 포함한 있으며 팔리어번역술어, 한글번역술어, 팔리어경명색인도 부록에 함께 실려있다. 이번 단행본판은 2002년 초판과 2007년 개정판의 오역도 바로 잡았다.

노덕현 기자



한편, <쌍웃따니까야>는 '주제에 따라 함께 엮은 가르침 또는 경전들의 모음'이라는 뜻으로 팔리어로 된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입문자들을 위한 포교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편, 통합개정본 발간을 희사한 대구 지장의 벽안 스님은 "우리말 빠알리성전을 읽고 부처님말씀을 널리 펼쳐 승가가 정화되고 붓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불국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보경사 적광전 등 성보 14건 보물지정예고

문화재청은 2월 23일 포항 보경사 적광전을 비롯해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금동찰주본기' 등 14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포항 보경사 적광전(사진)은 신라 진평왕 25년(602)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법사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진다. 보경사 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폍개 맞배 지붕 건물이다. 초석과 고막이 등이 전형적인 통일신라대 건축기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금동찰주본기'는 통일신라 경문왕 11년 왕명에 의해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실물자료다. 사리방 문비 내·외면에 선각된 신장상은 872년의 기록이 있어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된다.

'금동여거화상탑자'는 얇은 동판에 통일신라 선종승인 여거화상이 844년에 천황적인 통일신라대 건축기법을 보여준다.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기법으로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있는 학술가치가 있다.

노덕현 기자



'원주 학생동 철조약사여래좌상'은 원주지역에서 유행했던 조각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며 일제강점기까지 원주 학생동에 방치돼있었으나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제작연대(1468년)가 밝혀진 작품으로 불상과 불감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는 신라 말 고려 초의 고승인 낭공대사 행적의 탑비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원각경'으로 약칭하기도 하는데 고려 우왕 6년(1380) 4월에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마련해 간행한 목판본이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연구논집' 제7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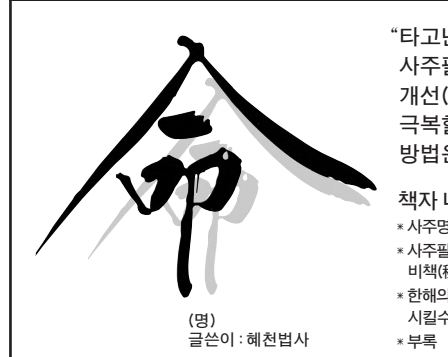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대학원(대학원장 보각)이 최근 '대학원 연구논집' 제7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에는 △아함전적예의 문헌학적 접근- '잡아함경' 제345경을 중심으로(정진일) △스가카마 발굴을 위한 남북 양전의 비교·대조 방법(김준호) △범한

대승방식 고찰(안재철) △구결의 종류와 각 시대별 특징(정재영) △유심주의 의미와 기초구조 연구- '화엄경'의 '십지품 현전지' 유심계 연구(도광 스님)가 수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이 어떤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혈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